

[2023-51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23. 8.3(목)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LA한국문화원, 한미동맹 70주년 맞아 특별사진전 개최

- 사진으로 보는 한미동맹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 전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함께 8.9부터 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려

사진으로 보는 한미동맹 70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한미 대표 1953.8.8.	한미상호방위조약문 1953.10.1.	인천상륙작전 중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 1950.9.15.

- ▶ 전시명 : 사진으로 보는 한미동맹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
- ▶ 전시기간 : 2023. 8.9.(수)-9.15.(금) / 전시개막식 8.9(수) 15:00-16: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1층 상설전시실 / 5505 Wilshire Blvd. L.A., CA
- ▶ 공동주최 : LA한국문화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 자세한 정보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LA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구만섭)과 공동으로 8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문화원 1층 특별전시실에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사진전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1953년 10월 1일)한 지 70년이 되는 해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지난 4월 워싱턴DC 전시에 이어 두번째로 LA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전시 주제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는 1951년 2월, 6·25 전쟁당시 백선엽(1920~2020) 장군이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 “We Go Together”라고 말한 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 7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 서약문과 체결 과정, 인천상륙작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와 재건을 통한 한미동맹의 역사 등을 담은 희귀하고 다양한 사진들을 관람할 수 있다.

정상원 문화원장은 "전시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지난 70년 동안 양국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과 기적의 역사를 함께 되새기고 축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개막식은 8.9(수) 오후 3시 LA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며, 전시는 8.10(목)부터 9.15(금)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 특별사진전에 전시되는 주요 사진은 다음과 같다.

- ①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문’과 그 체결 과정을 포착한 생생한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 이 조약은 워싱턴 D.C.에서 1953년 10월 1일에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포스터덜레스(美) 국무장관이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으며, 한국이 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원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② 1950년 9월 15일, 6·25 전쟁의 전세를 바꾼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사진도 이목을 끌 예정이다.
 - 특히,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한 미국 해병 1사단 소대장 발도메로 로페즈 (Baldomero Lopez, 1925~1950) 중위의 사진이 전시된다. 로페즈 중위는 상륙 직후 북한군을 향해 수류탄을 던지던 중 북한군이 쏜 총탄에 맞자, 뒤따르던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온몸으로 수류탄을 안고 산화했다. 이번에 전시된 사진은 로페즈 중위가 산화하기 직전의 순간을 중군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한미 대표 1953.8.8.	한미상호방위조약문 1953.10.1.	인천상륙작전 중 방벽을 넘는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 1950.9.15.

- ③ 그밖에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군사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와 재건을 통해 경제강국으로 우뚝선 과정을 담은 사진, 스포츠·미술·음악 등 문화를 교류하는 생동감 있는 사진을 전시하여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돈독한 한미관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지원으로 복구된 한강 제3철교 개통식 1957.7.5.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 5천년전 1981.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2022.5.20.